

| 중간사 |

이번 제7호는 지난해 11월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와 해양문화정책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'2019 해양문화정책콜러키업'에서 발표된 논문 3편과, 투고논문 5편과 기획 연재 글 등 어느 호보다 풍성하게 꾸몄다.

Ship's Bench에서는 이영석 교수님의 '영 제국과 존 실리의 해양담론'을 실었고, 해양논단으로 김주식 교수님의 '호남 지역 이순신 관련 사업의 개선 사업'을, 해양담론으로 이수열 교수님의 '왜구는 누구인가?'를, 해양 역사에서는 정진술 선생님의 '임진왜란기 거북선의 구조와 전술'에 대한 글을 실었다. 또 해양사론에서는 '고려동경에 새겨진 배는 우리 배인가?', 해양문학에서는 전국서 교수님의 '*Billy Budd, Sailor*와 제국주의'를, 해양 문화에서는 최성환 교수님의 '지도 군수 오홍묵의 1897년 도서 순행과 포구'를 실었다. 해양사의 한 장면에서는 '한국 최초의 국적 취득조건부 나용선 안동호'를, 해양영화로는 '포세이돈 어드벤처'를 소개했고, 해외해양사에서는 중국 지메이대학의 추이윈펑(崔云峰) 교수님이 '중국 고선의 안전 항해 관련 선박 구조 및 설비의 조작술'에 대한 귀중한 글을 보내 주었다. 역사와 문학이 고루 분포되어 말 그대로 '해양문화와 해양역사의 만남'을 통한 해양인문학의 대중화라는 창간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다.

지난 7년간 <해양담론>을 순전히 개인적인 역량과 업계의 도움으로 이끌어 왔다. 당초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를 세웠지만, 이제 이를 더 이끌어갈 동력과 업계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. 그 동안 <해양담론> 발간을 위해 도와 주신 모든 필자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업계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.

Bon Voyage!

2020. 봄, 봄꽃 핀 아치섬에서
편집장 김성준